다문화 사회 속 농촌의 모습 엿보다

임실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15일 개막
필봉마을 야간풍광과 수준높은 공연 기대감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이 야간상설공연을 시작한다.

임실군은 이달 15일 오후 8시에 필봉농악전수관에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전통연희극 춤추는 상쇠-필봉연가' 개막 공연을 펼친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필봉농악보존회는 춤추는 상쇠 시리즈로 2012년부터 계속 선정됐다. 아름다움 필봉마을 야간풍광과 함께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6월 매주 토요일과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총 20회의 공연이 열릴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필봉마을 상쇠 봉필이 속한 필봉예술단이 해외순회공연 중 우연히 만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필봉마을로 돌아오면서 마을사람들과 겪는 갈등과 화해를 다채로운 무대공연으로 선사한다.

지역민과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 회장은 "춤추는 상쇠-필봉연가는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초기의 갈등 관계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한 결말을 보여줄 것"이라며 "다문화 사회 속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을 상설공연을 통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한옥체험관에는 200석의 공연 관람석과 가족·단체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

공연의 관람료는 1만원으로 티켓은 현장에서 구매가능하며 전북투어패스카드를 소지한 관광객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 유명한 필봉농악 공연을 보신다면 잊지못할 추억과 더없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멋진 한옥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필봉의 풍물공연을 마음껏 즐기시며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063-643-190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기자

'좌충우돌 판타스틱한 모험이야기'

22일 부안예술회관서 '판타스틱 아쿠아'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하루 2회 판타지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아쿠아'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공연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포스댄스컴퍼니가 창작한 작품이며, 특히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는 2016년부터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2017년 전국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사례 선정, 2017년 천안흥타령 거리퍼레이드 대상, 2018년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대상, 2019년 대구컬러풀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실력 있는 단체로서 부안군민들에게 해마다 호두까기 인형, 판타스틱 앨리스 등 판타지댄스컬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판타스틱 스토리의 새로운 기대작 '판타스틱 아쿠아'는 신비하고 미지의 세계 바닷속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댄스뮤지컬로, 신비함으로 가득한 아쿠아월드에서 저주에 걸린 해적들과 벌이는 좌충우돌 판타스틱한 모험이야기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상주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즐거운 판파지 세계 속으로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공연 시작전 30분 전에 선착순 무료(전체관람가)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문화재단, 오늘 동문길 일대서 '동문 인문학 탐색 콘서트' 개최

전주문화재단은 다양한 시선에서 동문 거리 인문학을 바라보는 '동문 인문학 탐색 콘서트'를 오늘 오후 7시 동문길 일대에서 연다.

(재)전주문화재단은 다양한 시선에서 동문 거리 인문학을 바라보는 '동문 인문학 탐색 콘서트'를 오늘 오후 7시 동문길 일대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동문(東門) 거리를 거닐며, 인문학적 동문(同門)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진경은 KBS 방송작가가 읽어주는 북 콘서트, 박하늘 인문학 강사의 '동문(東門) 거리를 거닐며 동문(同門)이 되다' 강연 등이 펼쳐진다.

또 공유책방 사장님이 소개하는 이달의 도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먼저 진경은 KBS 방송작가가 읽어주는 북 콘서트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가 생애를 담은 도서 '나는 조선의 총구다'를 선정했다.

영화 '암살' 속 안옥윤(전지현) 인물의 모티브가 된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담은 '나는 조선의 총구다'를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역사 속 동문 거리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박하늘(이음 에듀테인먼트 대표) 인문학 강사는 전주 속 동문 거리가 가진 역사성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문 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보며 동문 거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동문 거리를 지켜온 한가네서점 최웅제 대표와 일신서점 기용석 대표가 참여하는 '공유책방 사장님이 소개하는 이달의 도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도서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하는 시민을 선정, '공유책방 사장님이 소개하는 이달의 도서'를 선물로 증정한다.

과거 동문 거리 일대는 70~80년대 주변의 학교들로 인해 헌책방, 인쇄소가 생겨나면서 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찾아오는 인문학의 거리로 자리 잡게됐다.

재단 정정숙 대표이사는 "동문거리에 다시 한 번 지혜의 해가 뜰 수 있도록 이달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동문(東門)거리를 찾아오면, 인문학적 동문(同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둘레, 연지 아트홀서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열어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둘레가 오는 25일 연지아트홀에서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을 진행한다.

토크 콘서트는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소리꾼인 오정해 씨의 진행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다. 공연은 '농담(弄談)'의 취지에 맞춰 '미작(美作)'과 '미작(味作)'을 주제로 구성된다. 아름다움과 맛에 대한 이야기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며 출연 게스트는 현장에서 공개된다.

또 영상편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주문' 코너에서는 시민들의 영상편지를 공개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문'의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둘레 홈페이지 dulle.or.kr에서 할 수 있다. 사연에 선정되면 VIP 좌석 티켓 2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정해의 농담은 3월 첫 시작부터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정읍시민은 30% 할인된다. 공연의 티켓은 이달 11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